

+ 찬미 예수님,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주님 부활을 기다리며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간음한 여자의 심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과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믿음의 생활을 견고히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잘못은 곧잘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면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단죄하기 위해
돌을 들고 서 있는 우리를 보고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자신 있게 서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 앞에서 고개 숙인 이를 보고
주님은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벌하고
죽여서 복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베풀고 용서하고
살리는 자비의 원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단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이제부터라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순절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차분히 희망을 안고 자신을 살펴보고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토마스